

스텔리언, 음반사 방해에도 '버터' 리믹스 발매

흑인 여성 래퍼 메건 더 스텔리언(26)이 소속 음반사의 반대를 물리치고 방탄소년단(BTS)과 협업한 '버터' 리믹스곡 발매 허가를 받아냈다.



▲ 메건 더 스텔리언. 사진=shutterstock

지난 24일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와 TMZ에 따르면 텍사스주 법원은 스텔리언이 제기한 긴급 구제 요청을 받아들여 '버터' 리믹스곡 출시를 허가했다.

스텔리언은 소속 음반사 '1501 서티 파이드 엔터테인먼트'가 '버터' 리믹스곡 출시를 막고 있다면서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그는 탄원서에서 글로벌 팬덤을 구축한 BTS와의 공동 작업은 자신이 해외 시장에 더 크게 도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버터' 리믹스곡이 제때 출시되지 않으면 자신의 음악 경력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팬은 물론이고 음악산업의 다른 아티스트와 관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BTS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리믹스는 원곡에 스텔리언의 랩, 시그니처 사운드와 애드리브 등을 더했다. '버터' 원곡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올해 가장 기간인 통산 9주간 1위를 차지했다. 발매 13주째에도 핫 100 8위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스텔리언과 협업한 버전으로 또다시 빌보드 정상에 탈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스텔리언은 올해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3관왕을 차지하는 등 최근 가장 성장세가 두드러진 차세대 래퍼로 꼽힌다.

'버터' 리믹스곡은 지난 27일 발매됐다.

브로드웨이에 유색인종 참여 늘어난다

백인에 편중된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의 인종적 다양성이 강화된다.



▲ 브로드웨이 작품에 더 많은 소수인종의 참여를 요구하는 시위. 사진=crainsnewyork.com

지난 2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본격적인 재개장을 앞둔 브로드웨이의 극장주들과 연출자, 출연자들이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약을 맺었다. '브로드웨이를 위한 뉴딜'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협약은 무대 위에 올려지는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부터 인종적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작가, 작곡가, 안무가, 무대·의상 디자이너 등 백인 일색의 창작진에 유색인종의 참여를 의무화한 것이다. 제작자들과 작가들은 "작품 내용과 상관없이 백인들로만 창작진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협약에는 인종적 감수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작 과정에서부터 전문가를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일부 브로드웨이 극장의 명칭이 흑인 예술가의 이름으로 변경되고, 뮤지컬과 연극계의 아카데미 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에도 인종적 다양성을 촉진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 협약은 흑인 배우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결성된 '블랙 시어터 유나이티드'의 주도로 추진됐다. 이후 41개 브로드웨이 극장주

들과 함께 연출가들의 이익 단체인 브로드웨이 리그와 배우 조합이 몇 달간의 논의를 거쳐 서명했다.

NYT는 이 협약에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극장주와 연출자, 배우들이 협약을 준수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협약에는 무대 감독과 안무가 조합 등 뮤지컬 관련 일부 단체는 불참했다.

졸리 "아프간 난민에 도움을"



▲ 앤젤리나 졸리. 사진=shutterstock

배우 앤젤리나 졸리(46)가 지난 20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호소했다.

졸리는 이날 인스타그램 계정 개설 후 첫 게시물로 무장세력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의 현재를 감옥살이에 비유한 10대 아프간 소녀의 손편지를 올렸다.

소녀는 편지에서 "탈레반이 오기 전 우리 모두는 권리를 가졌고, 권리를 자유롭게 옹호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탈레반이 오면서 모두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모든 꿈이 사라졌다. 우리는 다시 수감됐다"고 했다.

졸리는 편지를 소개하며 2001년 9·11테러 발생 2주 전 아프간 국경을 방문했을 때 탈레반 치하에서도 망쳐 나온 아프간 주민을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20년이 지나서도 아프간 사람들이 또 공포와 불확실성에 사로잡힌 나라를 떠나야 하는 것을 지켜보려니 끔찍하다. 아프간 난민을 도울 방법을 찾겠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졸리는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기본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공유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열었다"고 밝혔다.

숫자퍼즐 정답									
9	3	2	1	4	6	8	5	7	
1	4	5	2	8	7	9	6	3	
6	8	7	3	5	9	1	2	4	
2	5	9	6	7	4	3	8	1	
4	6	3	8	1	5	2	7	9	
7	1	8	9	2	3	5	4	6	
3	2	1	4	6	8	7	9	5	
8	7	6	5	9	1	4	3	2	
5	9	4	7	3	2	6	1	8	

날말퍼즐 정답												
1	장	부		2	산	3	전	수	4	전		
	호						성		5	우	6	마
7	조	8	심		9	실	기					니
		10	마	사	토				11	사	또	
12	언	니				13	미	달	이			
	저			14	새	끼			15	비	16	지
17	리	18	치		내							중
		19	유	통	기	한			20	동	해	

이광연공인회계사

“재산관리와 증식을 도와드립니다”

32년 경력의 세무·회계·재정계획전문가

- 세금보고
- 투자상담(Mutual Fund - 뮤추얼 펀드)
- 은퇴계획(Retirement Planning)
- IRAs IRA Rollover
- 401(K), SEP, SIMPLE IRA
- 자녀대학 학자금 계획(College funding Plan)
- 상속계획(Estate plan)
- 감사대행

Tel: (714)539-6444/5 Fax: (714)539-9261
 9828 Garden Grove Blvd. #213, G.G, CA 92844
 <한미은행 옆, 김약국 2층>